

제1공화국 초기 군사외교의 실패에 대한 고찰

1948~1950*

-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

尹時源**

1. 머리말
2. 정부 수립 초기의 군사력 건설과 군사외교
3. 1949년 6월 이후의 군사외교
4. 맺음말

1. 머리말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과 동시에 수많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독립국가를 수호할 근대적인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1948년 8월부터 1950년 6월까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대내외적인 제약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제1공화국 초기 국방정책 연구」의 3~5장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속에서 근대적인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대미군사 외교는 근대적인 군대를 건설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한국전쟁 직전 한국정부의 군사외교가 가진 한계는 기존 연구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 군사편찬연구소(구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 연구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¹⁾ 1967년에 간행된 『한국전쟁사』 1권은 본격적으로 한국전쟁 이전의 군사력 건설과 군사원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시도했다.²⁾ 군사편찬연구소가 주도한 연구들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한국군의 증강과 군사 외교의 한계를 규명하는 등 후속연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일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서술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³⁾ 1980년대 이후의 후속 연구들은 기존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미군사외교,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군사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보다 깊이 있게 발전시켰다.⁴⁾

한편 미국의 연구는 한국정부의 국방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창군부터 한국전쟁 종결까지 미국 군사고문단의 활동을 연구한 소이어(Robert K. Sawyer)는 미국 대한군사원조의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추진한 정책도 군사력 증강의 저해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⁵⁾

-
-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 해방과 건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 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I』, 198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시기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각각 해당 서적이 출간된 시기의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 해방과 건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314~317쪽. 이하 한국전쟁사(구판)
 - 3) 대표적으로, 국방군사연구소의 『建軍史』는 육군이 8개 사단으로 증강된 사실을 서술 하면서 국방부가 1948년에 계획했던 6개 사단 계획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국방부가 초기부터 육군 8개 사단 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국방군사연구소, 『建軍史』, 2002, 165~166쪽
 - 4)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김철범, 『한국전쟁과 미국』, 평민사, 1995; 안정애, 「駐韓美軍事顧問團에 관한 연구 : 韓國軍 創軍過程(1945~1950)에서의 役割 및 基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양영조, 『韓國戰爭 以前 38度線 衝突』, 국방군사연구소, 2000; 고재홍, 『한국전쟁의 원인 - 남북 군사력 불균형』, 한국학술정보, 2007
 - 5)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5

미국의 연구는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국 측의 연구가 소홀히 다룬 한국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⁶⁾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한국정부의 대미 협상 방식과 이승만 대통령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군사적 문제에 관여했으며 특히 군사외교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의 한반도 정세에 오판과 이로 인한 군사원조 부족이 끼친 영향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군사외교의 다른 한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 특히 그 정점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협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장기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의 외교안보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1948~50년 시기에 그가 군사외교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직전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력 건설과 그 한계를 이승만 대통령이 군사외교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정부 수립 초기의 군사력 건설과 군사외교

(1) 1948년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 외교

1947년 단독정부 수립이 불가피해 진 이후 미국은 국방경비대를 강화하여 새로운 정부의 군사력으로 삼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한국군을 미육군의 정규사단에 준하는 6개

6) Bryan Robert Gibby, *Fighting in a KOREAN WAR : The American Advisory Missions from 1946~1953*The Ohio State University(Ph.D), 2004; Allan R. Millet, *The War for Korea 1945~1950* A House Burning,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보병사단, 10만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육군부는 한국군의 역할을 국내 질서 유지와 내란 방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의 제안을 거부했다.⁷⁾ 미 육군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 육군은 경장비를 갖춘 5개 여단, 5만 명 규모로 제한되었는데 한국측은 이보다 큰 규모의 군대를 원하고 있었다.

1948년 7월 24일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한국군의 증강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전부터 군사력 강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은 1948년 4월 5일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방군의 군사 고문으로 맥아더, 웨드마이어, 아이젠하워와 같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장군들을 초빙할 뜻을 밝혔다. 올리버는 이승만의 뜻에 따라 웨드마이어와 접촉했으나 웨드마이어는 이승만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올리버는 당시 이승만의 최대 관심사는 5·10선거가 아니라 국방 문제였다고 회고했다.⁸⁾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군사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세부적인 사안을 일일이 지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지프를 개조한 장갑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⁹⁾ 정규군을 위한 이승만과 한국군의 규모와 역할을 NSC 8이 규정한 경비대 수준으로 제한하려 한 미국은 군사력 증강에 대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이범석 국방부장관과 미국 군사고문단이 국군조직법 제정을 두고 진행한 회의들은 변화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¹⁰⁾ 1948년 8월 9일, 이범석 장관은 국군조직법을 논의하기 위해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과 회견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이범석은 국방경비대가 불완전한 상태

7) CX-56612(1947. 11. 5), RG 9, Blue Binder Series, Reel 318-319, Korea(No.311-515), (국사편찬위원회 수집번호 080101832)

8) 로버트 T. 올리버/박일영 역, 『李承晩秘錄』, 한국문화출판사, 1982, 225쪽

9) 第十二回 國務會議錄(1949. 1. 21)

10) 통위부고문단은 정부 수립 이후 임시군사고문단(PMAG, The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으로 개편되었다.

이므로 소련군과 중국공산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대를 강화하고 병력을 증강할 것을 주장했다. 로버츠 준장은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 능력이 없으므로 규모는 작지만 잘 훈련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범석은 병역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병력증강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등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다.¹¹⁾ 8월 20일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각 군의 관계가 논의되었는데 이범석은 해안경비대를 해군으로 확대개편하고 육군 예하에 항공대를 창설해 공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국방부 조직의 확대를 주장했다. 조직의 확대와 함께 육군 병력증강문제도 다시 제기되었다. 로버츠 준장은 유능한 장교단, 특히 연대장 급 장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력증강은 곤란하다고 반대했으나 이범석은 장교단을 증강하고 장군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¹²⁾

임시군사고문단은 한국 정부의 국군증강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9월 29일 로버츠 준장은 이범석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임시군사고문단의 임무는 5만명의 육군 정규군과 국군조직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안에 따라 조직된 예비군만 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¹³⁾ 미국 정부는 한국군의 임무를 치안 유지로 한정하고 정규전 수행 능력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 점은 마샬 국무부장관이 로얄 육군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잘 나타난다. 마샬은 1948년 4월 8일에 작성된 NSC 8에 따라 최소 2년간 작전이 가능한 수준의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면 한국군의 임무 수행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¹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병력 증강과 공군의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11)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General Roberts and Lee Bum Suk at 1600, 9 August 1948, RG 338, KMAG, Box 4(국사편찬위원회 수집번호 0112133)

12) Conference between Lee Bum Suk, Premier of Korea, Gen Robts, Col Wright, Capt Hausman, Col Voss, and interpreter, 0800 to 0930, 20 Aug 1948, PMAG HQ: RG 338, KMAG, Box 4

13) 로버츠가 이범석에게(1948. 9. 29), RG 338, KMAG, Box 4

14) September 17, 1948,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Secretary of the Army(Royall), FRUS 1948 Vol. VI, p. 1303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다. 한국 정부는 국군조직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했다. 임시군사고문단은 국군조직법 초안에 NSC 8을 반영해 육군의 규모를 향토연대 체제에 입각한 5개 여단, 병력은 장교 2721명, 사병 4만 7279명으로 제한했다.¹⁵⁾ 그러나 국방부가 작성한 국군조직법 초안은 육군 상비군의 병력 상한선을 10만명, 해군은 1만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¹⁶⁾ 1948년 10월 1일, 국방부가 국무원에 제출한 국군조직법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회의 법안 심의에서도 병력 상한선 규정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었다. 국군조직법은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조로서 통과되었다. 국군조직법 최종안은 초안과 달리 군 병력의 상한선에 대한 조항 자체를 삭제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병력을 증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¹⁷⁾

육군 병력 증강은 국군조직법의 정식 통과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다.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의 반란은 병력 증강의 계기가 되었다. 1개 연대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버츠 준장은 5만명의 육군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추가모병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¹⁸⁾ 한국 정부는 임시군사고문단의 추가 모병요청을 병력 상한선을 깨트릴 기회로 삼았다. 이범석은 11월 4일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서북청년단(西北靑年團),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 청년조선총동맹(靑年朝鮮同盟) 대표와 회담을 가지고 반란으로 인해 군대가 편제에서 총 1만 5천 명이 부족하므로 결원 보충을 위해 청년단체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¹⁹⁾ 11월 6일 기준으로 육군병력은 46,280명이었으므로 실제 편제에서 부족한 인원은 4천명 이하였다. 미국과 합의한 병력 상한선이 이미 폐기된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이 구상한 5개 여단 체제의 근간인 향토연대 체제도 폐지되었다. 국방부는 11월 초부터

15) First Draft National Security Act of Republic of Korea 1948, p.10-11, RG 338, K MAG, Box 4

16) 『서울신문』 1948. 9. 22. 1면

17) 「國軍組織法」, 『國防關係法令集』, 協同文化社, 1960, 47-50쪽

18) Chief PMAG to Supreme C/S Col Chai(1948. 10. 23), RG 338, K MAG, Box 4

19) 『서울신문』 1948. 11. 7. 1면

14연대의 재창설과 16연대 창설을 위해 6천에서 7천명을 추가로 모병하기 시작했다.²⁰⁾ 국방부는 11월의 대규모 모병에 이어 12월 6일 육군의 인가병력을 6만 5천 명으로 상향조정했다.²¹⁾ 국방부의 육군 인가병력 상향조정은 미국과의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²²⁾ 이승만은 미국이 승인한 5만 명의 병력은 한국을 방어하는데 부족하며 추가로 5만 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²³⁾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병력 증강과 함께 대규모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11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친 군사원조 요청이 있었다. 첫 번째 군사원조요청은 11월 5일 무초에게 전달되었고 두 번째 군사원조요청은 12월 2일에, 세 번째 군사원조 요청은 1949년 1월 4일에 전달되었다.²⁴⁾ 11월 5일의 군사원조 요청은 주한미고문사절단을 거쳐 미육군부에 전달되었으며 해군의 증강과 공군창설을 위해 호위구축함(Destroyer Escort) 3척을 포함한 함정과 전투기 30대를 포함한 64대의 항공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²⁵⁾

1948년 12월 2일의 원조요청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아닌 주한미군사령부로 직접 전달되었으며 11월 5일의 것 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12월 2일의 군사원조 요청은 한국 정부의 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례이다. 국방부는 12월 2일의 원조 요청에서 육군을 6개 사단(18개 연대), 9만 3천명으로 증강하는데 필요한 육군 장비와 해군 증강 및 공군 창설에 필요한 전투 장비를 요구했다. 한국 국방부가 구상한 6개 사단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20) Weekly Activities of PMAG(1948. 11. 15), RG 338, KMAG, Box 4

21) Weekly Activities of PMAG(1948. 12. 6), RG 338, KMAG, Box 4

22) Request of Korean Government for Military Supplies(1949. 2. 15), RG 319 Army Staff Plans & Operations Division 1949-1950, Box 548(Folder #6)

23)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8. 11. 5), FRUS 1948 Vol. VI, pp. 1320~1321

24) Note by the Secretaries to the Holders of J.C.S 1483/60(1949. 3. 11), RG 319 Army Staff Plans & Operations Division 1949-1950, Box 548(Folder #6)

25) Memorandum for General Maddocks, Korean Military Expansion Program(1949. 1. 14), RG 319 Army Staff Plans & Operations Division 1949-1950, Box 548(Folder #6)

〈표 1〉 한국 정부의 육군 6개 사단 계획(1948. 12. 2)

	병 력			
	장 교	준사관	사 병	총 계
육군본부	281	31	746	1,058
육군사관학교	82		624	706
사단사령부(6개)	558	84	6,264	6,906
포병연대(6개)	858	30	10,704	11,592
수색대대(6개)	144		3,076	3,220
공병대대(6개)	162	18	3,540	3,720
특수부대	586	39	8,832	9,457
보병연대(18개)	2,772	30	54,288	57,150

※ 출처 : Request of government of Korea for Army, Air Force and Naval Equipment (1949. 1. 31), RG 319 Army Staff Plans & Operations Division 1949~1950, Box 548(Folder #6)

당시 한국군의 보병여단 편제는 미군 보병사단 편제를 간략화한 것으로 포병연대 등 핵심적인 전투부대를 제외하고 3개 보병연대로만 편성한 것이었다.²⁶⁾ 12월 2일의 원조 요청은 포병연대 등 정상적인 보병사단 편제에 필요한 부대를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8년 11월 20일의 제 19연대 편성으로 총 18개 보병연대가 편성되었으므로 핵심적인 것은 6개 포병연대의 편성에 필요한 원조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1948년 12월의 6개 사단 편성 계획은 한국 정부가 최초로 구상한 군사력 증강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방부의 사단 증편계획을 언급하면서 1949년 5월의 8개 사단 체제가 완성되는 과정에 집중했기 때문에 1948년의 6개 사단 편성계획을 간과하고 있었다.²⁷⁾

해군에 대해서는 경순양함 2척이 새로 추가되었고 호위구축함도 3척에서 8척으로 늘어나는 등 11월 5일보다 요구사항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경순양함을 요구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도 무리한 요구였다. 국민당 정부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함정 중 가장 규모가 큰 함정은 4,000톤급 전차양륙함(LST)이었으며 전투 함정의 경우는 2차대전 이후 일본군에게서 압

26) 윤시원, 「창군 초기 한국군 여단 편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 『史林』 35(2010. 2)

27) 국방군사연구소, 『建軍史』, 2002, 165~166쪽

수한 1,500~2,000톤급 구축함들을 양도받은 수준에 그쳤다.²⁸⁾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국민당 정부 이상의 원조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12월 2일의 원조 요청에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경비대(Constabulary)가 아닌 한국육군(Korean Army)과 한국해군(Korean Navy)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한국군을 경비대가 아닌 정규군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통보한 것이다.²⁹⁾ 이승만은 주한미군사령부에 군사원조요청을 하는 동시에 같은 날인 12월 2일 굿펠로우(Millard P. Goodfellow)를 일본에 파견해 맥아더에게서도 육군을 10만명으로 증강하는 문제를 지원 받고자 했다.³⁰⁾

당시 한국 국방부는 북한 인민군의 병력을 약 4만 7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증장비에 있어서도 한국군이 91문의 105mm 곡사포를 보유한 반면 북한 인민군은 76mm 곡사포 24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인민군이 한국군 보다 병력에서 열세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육군을 6개 사단으로 증강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 공산군이 1949년에는 8만 명으로 증강되고 만주의 조선인 중국공산군도 10만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³¹⁾ 그러나 북한군을 병력과 장비 면에서 압도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 해 더 많은 군사원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다.

국방부는 미국이 12월 2일의 원조 요청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병을 계속했다. 한국군의 병력은 1949년 1월 10일에 훈련병 2만 5634명을 포함해 총 7만 3601명에 달했다. 이것은 미국이 승인한 인가병력은 물론 국방부의 인가병력도 8천명 이상 상회하는 것이었다.³²⁾

28) 曹劍浪, 『國民黨軍簡史 下冊』, 解放軍出版社, 2004, 1510~1517쪽

29) Memorandum for General Maddocks, Korean Military Expansion Program(1949. 1. 14), RG 319 Army Staff Plans & Operations Division 1949-1950, Box 548(Folder #6)

30) 『서울신문』 1948. 12. 4. 1면

31) Request of Government of Korea for Army, Air Force and Naval Equipment(1949. 1. 31), RG 319 Army Staff Plans & Operations Division 1949-1950, Box 548(Folder #6)

32) Weekly Activities of KMAG(1949. 1. 10)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9(국사편찬위원회 수집번호 0111071)

병력증강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부작용도 속출했다. 일부 지역의 모병단체는 18세에서 22세까지의 청년은 모두 응모해야 한다고 응모를 강요하고 있어 강제모병이라는 소문이 유포되었다. 결국 이에 대해 국방부가 해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³³⁾

병력의 증강과 함께 편제 개편도 이루어 졌다. 1949년 1월 16일 까지 총 6개 여단이 편성되어 6개 보병사단을 편성할 기초를 마련했다.³⁴⁾ 1949년 1월에는 기존에 연대별로 분산되어 있던 포병중대를 통합해 6개 포병대대의 편성이 시작되었다. 포병단 고문관은 1949년 4월 1일까지 포병 6개 대대를 작전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³⁵⁾ 이 조치는 국군조직법에서 명시한 사단 편성의 전 단계로 사단 포병을 조직하려는 의도였다.

병력증강과 함께 장교단도 팽창하기 시작했다. 정부 수립이후 입교한 육사 7기는 정규반, 특별반, 후기반으로 구분되었는데 3개 반을 합쳐 1,152명이 입교했다. 이 중 장교경력자인 7기 특별반은 10월 12일 189명이 임관하였다.³⁶⁾ 이어 1948년 12월 7일 육사 8기 1,100명이 입교했다.³⁷⁾ 이것은 육사 교관들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한 것 이었다. 육사 8기는 추가 입교자를 포함해 총 1,400명이 입교했다. 임시군사고문단은 육사의 한 기수를 최대 600명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8기 입교 인원은 이것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³⁸⁾ 육사 8기는 1949년 5월 23일 총 1,263명이 소위로 임관했는데 이것은 1949년 1월 19일 육군의 소위 계급 장교 총원 1,164명 보다 더 많았다.³⁹⁾ 새로 임관한 장교의 숫자는 급증했으나 1948~'49년 겨울

33) 『경향신문』 1948. 12. 18. 4면

34) 각 여단의 예하 연대와 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1여단(11, 12, 13연대) - 김석원, 2여단(3, 18, 19연대) - 채원개, 3여단(5, 6, 15연대) - 최덕신, 5여단(2, 15, 20연대) - 원용덕, 6여단(7, 8, 10연대) - 김백일, 7여단(1, 9, 17연대) - 이준식, Weekly Activities of KMAG(1949. 1. 19),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9

35) Weekly Activities of KMAG(1949. 1. 10)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9

36) 장창국, 『陸士卒業生』, 중앙일보사, 182-195쪽: 미국 자료에는 10월 12일 임관한 인원이 155명으로 나타난다. Weekly Activities of PMAG(1948. 10. 11), RG 338, KMAG, Box 4

37) 장창국, 위의 책 230쪽

38) 라이트가 그랜트에게(1948. 12. 16), RG 338, KMAG, Box 4

39) Weekly Activities of KMAG(1949. 1. 19),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9

사이의 병력 증강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1949년 2월 11일의 국무회의에서 군이 단기간에 6만명 규모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장교의 부족이 심각하며 장교를 보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⁴⁰⁾ 국방부는 장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식민지시기 군사교육을 받은 인력을 확보하고자 했다.⁴¹⁾

1948년 말부터 고위 장교단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의 대규모 장성진급은 1948년 12월 22일에 있었다. 이날 육군의 김홍일, 채병덕, 이응준(李應俊), 송호성(宋虎聲)과 해군의 손원일(孫元一) 등 5명이 준장으로 진급했다.⁴²⁾ 이승만은 이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다시 대규모 장성진급을 단행했다.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육군의 김홍일, 채병덕, 이응준과 해군의 손원일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육군의 원용덕(元容德), 이형근(李亨根), 정일권(丁一權)과 해군의 김성삼(金省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시키는 안이 통과되었다.⁴³⁾

이범석이 1948년 8월의 회견에서 로버츠에게 밝혔듯 대규모 장성 진급은 한국군 증강을 위한 사전 조치였다. 대규모 장성진급은 육군 증강을 위한 사전준비뿐만 아니라 임시군사고문단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군사고문단 참모장 라이트 대령은 1949년 2월의 장성급 인사 단행으로 로버츠 준장의 계급이 한국군 장성보다 낮아져 효율적인 지도 업무가 어려워 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⁴⁴⁾

40) 第十八回 國務會議錄(1949. 2. 11)

41) 『동아일보』 1948. 12. 24. 2면

42) 김홍일 중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범석은 원래 김홍일은 소장으로 임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시군사고문단측은 김홍일의 계급이 육군총참모장보다 높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에 준장이 되었다. 金弘壹, 「나의 六·二五 緒戰回顧 - 漢江防禦作戰에서 平澤國軍再編成까지」, 『사상계』, 1964년 9월호, 226쪽 ; Weeka no.53(1948. 12. 31)

43) 第十六回 國務會議錄(1949. 2. 4)

44) 라이트가 무초에게(1949. 7. 19), RG 338, K MAG, Box 8(국사편찬위원회 수집번호 0112162)

(2) 주한미군 철수와 로얄 육군부 장관과의 협상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잔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전부터 미군을 계속해서 주둔시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1948년 3월 육군부 차관 드레이퍼가 내한했을 때 향후 수립될 정식 정부가 제주도를 미국 해군기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⁴⁵⁾ 미군을 잔류시키려는 시도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구미지역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조병옥은 9월 23일 국무부장관 대리 로벳(Robert A. Lovett)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군이 충분히 강화될 때 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⁴⁶⁾

그러나 미군의 철수가 가시화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국군의 증강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승만은 1948년 11월 2일 무초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군이 충분히 증강되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⁴⁷⁾ 미국은 주한미군 철군 반대에 직면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한국군의 병력 규모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를 위해 1949년 2월 육군 부장관 로얄과 웨드마이어 중장을 파견했다. 이승만과 로얄의 회견은 1949년 2월 8일에 열렸다. 이 회견에서는 한국의 안보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상반된 견해가 표출되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방부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작성해 2월 8일 로얄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이 문서는 12월 2일의 군사원조 요구를 반복한 것으로 육군을 6개 사단 10만명으로 증강하고 동시에 공군

45) Conference between Under Secretary Draper and Mr. Syngman Rhee, on 28 March 1948(1948. 4. 10), RG 335(군사편찬연구소 소장번호 SN 678)

46)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1948. 9. 23), FRUS 1948 Vol. VI. p. 1310

47)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8. 11. 5), FRUS 1948 Vol. VI. pp. 1320~1321

을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⁴⁸⁾ 군사력 증강이 필요한 이유로는 중국정세의 악화를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만주와 중국본토의 상황이 악화되었고 조선인이 포함된 중국공산군이 입북해 북한군에 편입되고 있어 남침 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⁴⁹⁾

이승만은 이 회견에서 병력 증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승만은 일본군과 중국군에서 군사경험을 쌓은 15만에서 20만명의 인력으로 즉시 잘 훈련된 10만명의 군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⁵⁰⁾ 웨드마이어는 이승만이 그리스처럼 일방적으로 병력을 증강한 뒤 이것을 구실로 미국의 원조를 더 받아내려 한다고 보았다.⁵¹⁾ 한편, 이승만은 군대를 증강해 북진을 하기를 원하지만 한국군이 북진하면 주한미군이 말려들어 미국의 입지를 흔들 수 있으므로 북진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을 했다.⁵²⁾ 국방부와 내무부의 공동 보고서가 남침의 위협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이승만이 북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로얄은 회담결과 이승만을 설득해 한국육군의 증강을 6만 5천명에서 제한하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했다.⁵³⁾ 이 회담의 결과를 반영해 1949년 3월 22일

48) Informal Report on Status of National Defense Forces of Republic of Korea as of 7th February 1949, Chapter 4, pp. 2~3, RG 335, Box 78(군사편찬연구소 소장번호 SN 620)

49) Informal Report on Status of National Defense Forces of Republic of Korea as of 7th February 1949, Chapter 5, p.2, Chapter 6, p. 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번호 SN 620)

50)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the Army(Royall)(1949. 2. 8), FRUS 1949 Vol. VII, pp. 956~957

51) 웨드마이어가 로버츠에게(1949. 3. 11), RG 338, K MAG, Box 4

52)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the Army(Royall)(1949. 2. 8), p. 957;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pecial Representative in Korea (Muccio)(1949. 2. 25), FRUS 1949, Vol. VII, pp. 958~959

53) 무초는 1972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승만의 협상술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그들(로얄과 웨드마이어)은 이승만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나의 보고서 또한 이승만이 우리가 그의 군사적 요구에 대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동의했다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결코 '알았소(Yes)'하고 동의한 적도 없었고 또 '싫소(No)'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John. J. Muccio Oral History Interview, The Harry Truman Library, 1972, p. 10. 무초는 1972년 인터뷰에서 이승만과 로얄의 회담 시기를 잘못 기억하고 있다.

채택된 정책문서 NSC 8/2는 미국이 원조할 한국의 군사력을 육군 6만 5천 명, 경찰 4만 5천명, 해군 4천명으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무초의 제안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 한국군 6만 5천 명에게 최소 6개월분의 군사 장비와 보급품을 양도하는 것도 명기되었다.⁵⁴⁾ 이 문서에서 승인한 6만 5천명의 병력은 한국이 이미 편성한 18개 보병연대는 승인하되 한국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6개 포병연대 등 중장비를 요구하는 원조는 거부하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 또한 한국군은 중장비를 운용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NSC 8/2에서 승인한 추가병력에 대한 지원은 개인화기와 개인군장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기획작전국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제안을 수용해 주한미군의 최종철수시한인 1949년 6월 30일까지 2백만 달러 규모의 장비를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⁵⁵⁾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정부는 1949년 초 까지 육군을 6개 사단으로 증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수단으로 미국에게서 군사원조를 상향조정하겠다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보다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작은 승리'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

3. 1949년 6월 이후의 군사외교

(1) 6개 사단 계획의 폐기와 육군의 증강

이승만 대통령은 2월 8일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다. 3월 1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만 20세 이상의 남성에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안이 수정

54) NSC 8/2(1949. 3. 22), 『韓國戰爭資料叢書 1 - 美 國家安全保障會議文書 Korea I, 1948~1950』, 國防軍史研究所, 1996, 17쪽

55) Equipment for Additional 15,000 Korean Army Troops(1949. 3. 23), RG 319 Army Staff Plans & Operations Division 1949-1950, Box 548(Folder #4)

없이 통과되었다.⁵⁶⁾ 미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국군 증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로얄과의 회견이 있기 일주일 전인 2월 1일 제21연대가 편성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통보한 18개 보병연대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병연대를 편성한 것이다. 최소한 이 시점에서는 한국정부가 육군을 6개 사단 이상으로 증강할 결심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가 임박한 상태에서 추가 원조의 집행이 더더지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 집행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언론에 대한 발표의 형태로 나타났다. 4월 18일 이승만은 주한미군의 철군과 함께 미국이 한국군 10만 명의 증강과 장비 원조를 제공하고 주한군사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을 설치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⁵⁷⁾ 채병덕 또한 기자회견에서 국군을 10만명으로 증강하는 것은 이미 육군부 장관 로얄의 방한 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조한 장비가 도착하는 즉시 구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⁵⁸⁾ 그러나 육군을 10만 명으로 증강하는 것은 미국과 합의된 바가 없었으며 모두 사실 무근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1949년 4월 28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대한민국정부에 임시군사고문단이 주한군사고문단으로 승격되었음을 통보하되 한국 육군을 10만 명으로 증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도록 지시했다.⁵⁹⁾

이승만은 미국의 병력 증강 반대가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한정책을 따른다면 한국도 또 하나의 중국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나갔다.⁶⁰⁾ 이승만은 조병옥에게 보낸 서한에서

56) 『서울신문』 1949. 3. 15. 2면

57)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Butterworth)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 4. 18) FRUS 1949 Vol. VII, p. 993

58) 『경향신문』 1949. 4. 25. 2면

5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1949. 4. 28), FRUS 1949 Vol. VII, p. 997

60) 올리버, 앞의 책 301~305쪽

도 한국의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필요한 군사원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⁶¹⁾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의 태도에 분노하면서도 아직 미군 철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했다. 한국 정부는 병력 상한선을 7만 5천명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미군의 철군과 군사원조의 진행 상태를 살폈다. 이승만은 5월 하순까지 협상을 통해 미군 철수를 연기하려 했다. 이범석의 후임으로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신성모는 5월 26일 무초를 방문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⁶²⁾ 이승만은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때 까지 주한미군을 주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⁶³⁾

이승만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게 되자 육군 병력의 상한선을 10만명으로 높일 것을 결심했다. 1949년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육군 병력을 2만 5천명 늘려 10만명으로 증강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⁶⁴⁾ 동시에 육군을 6개 사단으로 제한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1949년 6월 10일 제 23연대가 창설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25연대, 8사단, 수도경비사령부의 편성 명령이 내려졌다.⁶⁵⁾

그러나 미국의 군사원조에 장비와 보급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승만은 미군 철수 이전인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무기 구입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 했다.⁶⁶⁾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국내의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형식적인 구호만을 내세우고 있었다. 신성모는 5월 1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이 무기를 원조하지 않는다면

61) 이승만이 조병옥에게(1949. 4. 10), 『大韓民國史資料集 29 -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2 : 1949-1950』, 국사편찬위원회, 1996, 44~47쪽

62)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 5. 26), FRUS 1949, Vol. VII, pp. 1034~1035

63) 第五十三回 國務會議錄(1949. 5. 27)

64) 第五十五回 國務會議錄(1949. 6. 3)

65) 『建軍史』, 166쪽

66) 第十六回 國務會議錄(1949. 2. 4)

민족 전체가 밥을 한 끼 먹지 않고 절약해서라도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⁷⁾ 이승만은 1949년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미군철수를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기 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⁶⁸⁾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육군 상한선을 10만 명으로 높이자 군사고문단은 예정된 훈련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군사고문단은 고문관의 부족을 들어 신규부대를 조직하는 대신 1개 중대 당 인가병력을 15명에서 60명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 육군의 무장상태는 1948년 12월 이래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4만 3천정의 M1 소총, 1만~2만정의 일제소총, 카빈과 공용화기를 포함해야 10만명을 겨우 무장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다.⁶⁹⁾

하지만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직의 확대와 병력 증강만으로는 미국의 원조를 얻을 수 없었다. 1949년 2월 로얄과의 회견에서 드러났듯 실질적으로 군사원조를 집행하는 주체인 미국 육군부의 주목을 끄는 것이 중요했다. 이승만은 회견에서 한국군이 38선 분쟁을 도발해 주한미군의 철군을 지연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었다.

1949년 5월 이전에 발생한 38선 충돌은 규모가 작았고 우발적이었다. 육군본부는 '편성·장비·교육·훈련 등 제반 준비가 미비하여' 일체의 도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청년장교들 중 일부가 적을 위압해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⁷⁰⁾ 1948~49년 겨울의 성공적인 반란 진압 등으로 한국군의 사기는 높아졌으며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었다.⁷¹⁾ 한국군 장교들은 군사고문단이 공격 대신 방어 훈련을 시키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⁷²⁾

67) 『동아일보』 1949. 5. 13. 2면

68) 第五十六回 國務會議錄(1949. 6. 7)

69) 로버츠가 알몬드에게(1949. 6. 16) RG 338, KMAG, Box 8

70) 이용준, 앞의 책, 266~268쪽

71)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Mission in Korea(1949. 4. 13), FRUS 1949 Vol. VII, 987~988쪽

72) 장창국 대장의 증언,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03, 22~23쪽

미군 철수가 진행되면서 38선 분쟁의 강도는 점차 높아졌다. 한국전쟁 이전 38선 충돌에 대한 한 연구는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38선의 무장충돌은 현지 지휘관들의 권한을 뛰어넘어 중앙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⁷³⁾ 5월 4일 개성에서는 대규모 무장충돌이 발생했다. 38선의 무장충돌이 주한미군의 철수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미국대사관은 5월 7일 이승만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이승만은 미국대사에게 한국군은 공격행동을 자제할 것이며 38선을 넘어가 충돌을 도발하지 않을 것을 거듭 약속했다.⁷⁴⁾ 그러나 이승만은 5월 17일 국무회의에서 38선 경비가 완전히 한국 정부의 관할로 넘어왔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방부장관 신성모에게 '38선 以北 短距離要衝을 自進占領確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⁷⁵⁾ 미국 대사에게 무장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언급을 한 뒤 신성모 장관에게 무장 충돌을 확대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린 것은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모험적인 정책은 미국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군사고문단은 공격용 무기를 원조할 경우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⁷⁶⁾ 대한원조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국무부도 한국의 호전적인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애치슨은 무초에게 보낸 훈령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면 미군 철수를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⁷⁷⁾ 그리고 1949년 6월 29일에는 주한미군의 잔존 병력 1,500명이 철수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되었다. 미군이 철수하자 이승만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협상수단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원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군의 증강은 꾸준히 진행되어 7월 12일 7만 6953명이던 육군은 1개월 뒤인 8월 12일에는 9만 4천

73) 정병준, 앞의 책 259쪽

74) 무초가 국무부장관에게(1949. 5. 10), FRUS 1949, Vol.VII, p. 1018

75) 第四十九回 國務會議錄(1949. 5. 17)

76) Sawyer, 앞의 책 100쪽

77) 小此木政夫, 위의 책 46쪽

명을 돌파했다. 미국대사관과 군사고문단은 한국 정부가 육군을 10만 이상으로 증강하는 것을 저지해야 했다.⁷⁸⁾ 육군이 8개 사단 체제로 개편되면서 3개 사단은 편제에 미달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모병을 계속해서 추진했다. 무초는 7월 초 이승만에게 급격한 병력 증강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정부에 충성하는 소규모의 군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만은 무초에게 모병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병을 다시 시작했다.⁷⁹⁾ 정규군 증강과 함께 예비군의 증강도 추진되었다. 이승만은 7월 8일의 내외기자단 회견에서 국내 치안확보를 위해 20만명의 민병을 양성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⁸⁰⁾

(2) 병력증강의 부작용과 군사외교의 실패

원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병력을 10만명으로 증강한 결과 장비와 물자의 부족이 심각해졌다. 미군이 한국군에 양도한 장비는 NSC 8에 의거하여 5만명의 육군을 장비시킬 수 있는 소화기와 소수의 중장비였다. 국방부는 1948년 12월 6일 육군의 인가병력을 6만 5천명으로 승인했으나 초과한 1만 5천명 분의 소화기를 조달할 계획을 결여하고 있었다.⁸¹⁾ 육군 병력이 6만 7천명 수준이었던 1949년 3월에도 장비 부족으로 중대당 평균 50명이 소총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⁸²⁾ 국방부는 기본적인 소화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군을 10만명으로 증강하는 계획을 강행한 것이었다.

보급품도 병력 증강의 영향으로 부족해졌다. 군사고문단은 한국육군의 여단장과 그 이하 급의 지휘관들은 보급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보급에 대

78) 로버츠가 알몬드에게(1949. 8. 5), RG 338, KMAG, Box 8

79)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Northeast Asian Affairs(Bond)(1949. 7. 13), FRUS 1949, Vol. VII, p. 1060

80) 『서울신문』 1949. 7. 9. 2면

81) Weeka no.52(1948. 12. 24)

82) 로버츠가 웨드마이어에게(1949. 3. 25),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1

한 미국고문관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⁸³⁾ 미국은 탄약 등 물자 지원을 장비 단위로 책정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병력 증강은 치명적이었다. 공용화기를 포함한 각종 화기는 훈련을 위해 여러 명의 병사가 사용하고 있어 훈련으로 인한 탄약 소모가 심각했다. 육군본부 군수고문관 가이스트 소령은 한국군이 보급과 정비에 있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⁸⁴⁾ 로버츠도 보급 문제에 있어 비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육군부 기획작전국장 볼테(Charles L. Bolte) 소장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군은 사실상 최후의 무기와 탄약을 소모하기 직전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국군이 인가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증강한 것이 보급 소모를 증가시킨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국방부는 탄약 재고량이 전쟁 발발 시 2.1 일 간 사용양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미 군사고문단은 5일치라고 파악하고 있었다.⁸⁵⁾

38선의 무력충돌은 부족한 장비와 보급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국방부는 1949년 6월 8일 군사고문단에 5천만발의 소화기 탄약을 요청했으나 군사고문단은 먼저 한국군의 탄약 낭비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⁸⁶⁾ 한국군은 사격 훈련의 부족과 사격 군기의 결여로 실전에서 막대한 양의 탄약을 소비하고 있었다. 8월에 있었던 웅진반도 전투에서 한국군은 69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시키는 대신 102만 2276발의 각종 탄약을 소모했다. 이것은 1만 4604발을 사용해 북한군에 1명의 사상자를 입힌 것이다.⁸⁷⁾ 로버츠 준장은 한국군의 탄약 소비는 '황당할'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원조 요

83) Difficulties Confronting PMAG(1948. 12. 6), RG 338, KMAG, Box 4

84) Abuse of Military Equipment(1949. 8. 5),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12

85) 로버츠가 볼테에게(1949. 9. 13), RG 338, KMAG, Box 8

86) 라이트가 채병덕에게(1949. 6. 11),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12

87) Memorandum t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G 338(1949. 8. 17), KMAG, Box 8. 같은 문서에 따르면 탄약 종류별 소비량은 다음과 같다. 30구경 기관총탄 223,502발, 30구경 소총탄 288,071발, 30구경 카빈탄 242,989발, 30구경 자동소총탄 158,897발, 45구경 권총탄 32,140발, 50구경 기관총탄 51,506발, 2.36" 로켓탄 634발, 60mm박격포탄 10,269발, 81mm박격포탄 8,696발, 105mm곡사포탄 5,572발

구를 그대로 들어주면 더 악순환에 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⁸⁸⁾ 18연대와 교대해 웅진반도에 배치된 2연대는 실전경험이 있는 부대로 평가받았지만 정규군 경험은 부족해 전투시 탄약 소비가 심했다.⁸⁹⁾ 채병덕도 한국군 부대가 작전 중 탄약을 낭비하는 경향이 심각하다고 인정했다.⁹⁰⁾ 미군 철수 이후 5100만발의 탄약이 원조되었으나 탄약의 낭비가 심해 1949년 말에는 1,900백만발로 줄어들었고 추가적인 원조가 지연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⁹¹⁾

한국군 내부에서도 육군을 10만명 규모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장 김홍일은 한국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채병덕이 주장한 정규군 10만명과 호국군 20만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⁹²⁾ 병력을 유지하는데 국방예산의 80%를 소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선부대에 시급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전방 사단들이 요청한 대전차호(對戰車壕)와 야전축성(野戰築城) 건설도 예산 부족으로 거부되는 실정이었다.⁹³⁾ 포천과 파주 지구에서는 대전차호 건설이 비예산사업으로 학생을 동원해 시작되었으나 전쟁이 발발할 때 까지 완료하지 못 했다.⁹⁴⁾

한국 정부는 1948년 겨울부터 병력을 급속히 증강시켰고 미군 철수가 기정사실화 되자 원래 계획하고 있던 6개 사단 계획을 취소하고 육군을 8개 사단으로 증강시켰다. 필요한 군사원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군대의 규모가 늘어난 결과 장비와 보급문제는 미군 철수 이전부터 악화되었다. 무리한 병력 증강은 부대 훈련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1949년 초부터 8월까지 신규부대 편성과 부대 이동이 진행되면서 이 시기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기초훈련도 완료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949년 가을까지 부대 이

88) "They burn up ammunition at a fantastic rate in operations, and to supply all their requirements only compound the problem." 로버츠가 볼테에게(1949. 8. 19), RG 338, K MAG, Box 8

89) 左左木春隆, 위의 책 456~457쪽

90) 채병덕이 로버츠에게(1949. 2. 21),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12 (국사편찬위원회 수집번호 0111074)

91) Sawyer, 앞의 책 98쪽

92) 김홍일, 앞의 책, 79~80쪽

93) 정일권, 『丁一權回顧錄』, 高麗書籍, 1996, 133쪽

94) 안용현, 『韓國戰爭秘史 1 - 建軍과 6.25』, 경인문화사, 143쪽

동으로 인한 혼란은 정리되었으나 신규부대 창설로 인한 군 간부들의 인사 이동, 부족한 장비와 물자는 교육훈련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남았다. 38선의 무장 충돌에서도 일선 지휘관들의 공격적인 부대 배치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군의 장비 및 물자상황이 꾸준히 악화된 반면 군사원조의 전망은 계속해서 어두워졌다. 먼저 주한 미군의 철수로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미국 국무부의 아시아 정책을 비난하면서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대한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⁹⁵⁾ 군사원조를 위한 외교활동은 난항을 겪었다. 구미지역 대통령특사 조병옥과 주미한국대사 장면은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군부 인사들과 접촉해 의회에 대한 군사원조 증액을 요청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으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⁹⁶⁾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에 대한 1950년 회계연도 군사원조계획에 1100만달러 미만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었다. 서유럽 등 미국의 안보전략에 중요한 지역들이 막대한 군사원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원조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⁹⁷⁾ 군사원조 협상의 난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신성모는 1949년 7월 17일에 열린 대한청년단 인천부단 훈련시범대회에서 기자단에게 미국의 군사 원조를 낙관한다고 공언했다.⁹⁸⁾

한국군의 병력 상한선을 10만명으로 인정받으려는 외교적 활동은 계속되었다. 조병옥(趙炳玉) 구미지역 대통령특사는 7월 11일 애치슨(Dean Acheson) 국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육군 10만명, 예비군 5만명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⁹⁹⁾ 이승만 대통령도 7월 12일 무

95) 이승만이 조병옥과 장면에게(1949. 6. 24), 『大韓民國史資料集 29 -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 2 : 1949-1950』, 국사편찬위원회, 1996, 76~77쪽

96) 볼테가 로버츠에게(1949.7.21), RG 338, K MAG, Box 8

9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1949.7.15), FRUS 1949, Vol.VII, 1061~1062쪽

98) 『서울신문』, 1949. 7. 19. 2면

99)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1949. 7. 11), FRUS 1949 Vol. VII, p. 1059

초 대사에게 육군 10만 명에 대한 군사원조를 요청했다.¹⁰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응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미 대사관, 군사고문단의 관계는 악화 되었다. 이승만은 측근들에게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어떠한 동정심도 없으며 그가 있는 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승만은 로버츠를 축출하면 모든 일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병옥은 로버츠 준장을 다른 고위 장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승만은 최악의 경우 미국정부에 직접 군사고문단장의 교체를 요구할 생각이었다.¹⁰¹⁾

8월 12일 경무대에서 진행된 이승만 대통령과 미 대사관, 군사고문단의 회담에서는 악화된 양자의 관계가 그대로 표출되었다. 첫 번째로 제기된 문제는 보급품 부족이었다. 신성모는 채병덕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근거해 하루 탄약 소비량을 110발로 계산하면 한국군은 소총 1정(M1소총 기준)당 사흘 반 분량의 탄약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로버츠 준장은 소총 1정당 500발의 탄환이 있으며 미국 기준으로 이것은 166일치의 탄약이라고 주장했다. 무초는 미국의 원래 원조는 5만명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인가병력을 6만 5천명으로 늘리면서 물자의 소모가 심각해 졌으며 한국 정부가 대규모 육군만을 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무초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병력을 10만명으로 증강했기 때문에 무기와 물자의 부족을 심각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범석은 중국 공산군 8만명이 북한군에 편입된 상황에서 남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증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승만도 공산군이 남침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시급히 군사원조를 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로버츠는 한국 육군을 10만명 이상으로 증강하면 군사고문단이 훈련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일제 소총 2만 5천정을 포함하면 10만명분의 장

100)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Assistant Chief of the Division of Northeast Asian Affairs(Bond)(1949. 7. 13), FRUS 1949 Vol. VII, p. 1061

101) 이승만이 조병옥과 장면에게(1949. 7. 18), 『大韓民國史資料集 29 - 李承晚關係書翰資料集 2 : 1949-1950』, 국사편찬위원회, 1996, 119~120쪽. 이승만은 2차대전 당시 장개석이 군사고문 스틸웰과 불화를 겪던 끝에 미국 정부에 요청해 그를 경질한 사건을 잘 알고 있었다.

비는 충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¹⁰²⁾ 미국 대사관과 군사고문단은 미국 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는 위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승만은 이날 회견 이후 조병옥에게 로버츠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다.¹⁰³⁾

미국으로 부터의 군사원조 전망이 밝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 높여나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 20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승만은 이 서한에서 정규군 10만명과 예비군 30만명 분의 장비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요청한 군사원조(1949. 8. 20)

	정규군(10만)			예비군(30만)		
	필수량	현보유	과부족	필수량	현보유	과부족
M2 105mm 곡사포	12	0	-12	4	0	-4
M3 105mm 곡사포	192	85	-107	64	0	-64
M1 81mm 박격포	684	275	-409	228	0	-228
M2 60mm 박격포	962	373	-589	321	0	-321
57mm 대전차포	204	117	-87	68	0	-68
37mm 대전차포	72	21	-51	24	0	-24
M2 50구경 기관총	400	443	+43	135	43	-92
권총	6,080	4,199	-1,881	2,027	0	-2,027
기관단총	752	692	-60	274	0	-274
M1919 A4	618	352	-266	206	0	-206
M1917 A1	792	291	-500	264	0	-264
M1 소총	82,320	40,050	-42,270	17,440	0	-17,440
M1 카빈	33,183	14,736	-18,447	11,061	0	-11,061
자동소총(BAR)	2,333	1,091	-1,242	779	0	-779
2.36" 바주카포	3,264	1,961	-1,303	1,088	0	-1,088

※ 출처 : An anthology of selected pieces from the Declassified file of secret U.S. materials on Korea before and during Korean War(vol.1), National Unification Board, 181, p. 102; 안정애, 「駐韓美軍事顧問團에 관한 연구 : 韓國軍 創軍過程(1945~1950)에서의 役割 및 基能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에서 재인용

102) Conference at Capitol - August 12, 1949,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12

103) 이승만이 조병옥에게(1949. 8. 12), 『大韓民國史資料集 29 - 李承晚關係書翰資料集 2 : 1949-1950』, 국사편찬위원회, 1996, 135쪽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한 내역에서 주목할 것은 정규군 10만명 분으로 요구한 소화기의 양이 12만명 분 이라는 점이다. 2만 명분의 예비물자를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이미 2만명 분의 일제 소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력을 10만명 이상으로 증강할 것을 고려한 요구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군사고문단은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병력 보다 더 많은 무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로버츠 준장이 육군부에 보낸 9월 13일자 서한에서 밝혔듯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무기는 13만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이었다. 한국 정부는 10만 명 이상의 소화기와 함께 46톤급 전차와 추가적인 105mm포 등 중장비를 요구하고 있었다.¹⁰⁴⁾ 전차 등 중장비를 모두 포함할 경우 원조액은 5천 8백만달러에 달했다.¹⁰⁵⁾ 이승만의 1949년 8월 20일 원조요청은 1948년 12월 2일의 원조요청과 달리 육군에 필요한 장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48년 12월의 원조 요구에는 순양함 2척을 포함해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불필요한 장비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비용도 2억 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1949년 8월 20일의 원조요청은 한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무리한 요구를 상당 부분 줄이고 현실적인 타협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것이었다.

무리한 요구는 공군과 해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공군기 원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요구 사항을 더 높여 프로펠러 전투기인 F-51 대신 제트 전투기인 F-80을 요구했다.¹⁰⁶⁾ 한국공군은 현실적으로 제트전투기를 운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공군은 이승만의 요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¹⁰⁷⁾ 또한 이승만은 미국이 경순양함을 제공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조병옥 특사에게 한 등급 더 높은

104) 신성모가 요구한 전차는 M-26이었다. Allan R. Millet, *The War for Korea 1945-1950 : A House Burning*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p. 217

105) 로버츠가 볼테에게(1949. 9. 13), RG 338, KMAG, Box 8

106) 이승만이 무초에게(1949. 7. 1),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6(국사편찬위원회 수집번호 0111070)

107) 브라운필드가 무초에게(1949. 7. 18), RG 338, PMAG 1948-49/KMAG 1948-53 Box 6

중순양함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¹⁰⁸⁾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신성모는 11월 20일 방한한 미 하원의 예산분과위원회의 노렐(William Frank Norrell) 의원에게 육군에 대한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표 3〉 미 하원 예산분과위원회가 전달받은 군사원조 요청(1949. 11. 20)

장 비	수 량	장 비	수 량
M1 소총	38,270	M1 81mm 박격포	409
카빈	13,367	M2 60mm 박격포	589
BAR	1,242	57mm 대전차포	87
M1 총검	50,905	37mm 대전차포	51
카빈 총검	13,367	M3 105mm 곡사포	20
2.36" 바주카포	1,303	M2 A1 105mm 곡사포	162
M2 50구경 기관총	269	M2 155mm 곡사포	54
45구경 권총	3,928	M26 전차	189
45구경 기관단총	510	M45 전차*	18
30구경 공랭식 기관총	266	M24 경전차	6
30구경 수랭식 기관총	500		

※ 출처 : Information on Korean Military Assistance Program(Status of Korean Forces)(1950. 1. 4), RG 319 Army Staff Plans & Operations Division Decimal File 1949-1950 091.Korea Box 549(Folder #9)

* 화력지원을 위해 M-26 전차에 90mm전차포 대신 105mm곡사포를 장착한 파생형이다.

신성모는 미 하원 의원단에게 북한 공산군의 병력이 24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남침을 막기 위해서는 20만의 육군이 필요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108) 이승만이 조병옥에게(1949. 4. 10), 『大韓民國史資料集 29 : 李承晩 關係書翰資料集 1949-1950』, 46쪽

10만명에 대한 군사원조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¹⁰⁹⁾ 그러나 신성모의 원조 요청은 미국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것이었다. 미 육군은 예산 문제로 M26과 개량형인 M46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해 2차 대전 당시 생산된 구식 M4A3E8 전차를 계속 운용하고 있었다. 전차의 부족으로 일본에 주둔한 미군 4개 사단은 편제에 미달하는 1개 경전차 중대만 유지하는 실정이었다.¹¹⁰⁾ 또한 당시 미8군의 예하 부대들은 물자 부족으로 낡은 장비들을 재활용하고 있었다.¹¹¹⁾ 최신 무기가 아니더라도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있었으나 한국 정부는 M26 전차, 155mm 곡사포 등 미군이 보유한 최신형, 일선급 장비만을 요구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목표로 한 10만명의 병력을 확보한 이후에도 육군 증강을 계속하려 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이 정한 병력상한선인 육군 10만명을 달성한 뒤에도 신규부대 창설과 모병을 시도해 군사고문단과 마찰을 빚었다. 8월 초 국방부는 웅진반도를 관할하기 위해 새로 9사단을 창설할 계획을 세웠다.¹¹²⁾ 로버츠 준장은 9사단의 편성은 고문관의 부족을 초래하고 서울 방어를 위한 예비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¹¹³⁾ 군사고문단의 반대로 9사단은 편성되지 않았다. 로버츠 준장은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장비와 보급 문제가 악화되므로 육군을 10만 이상으로 증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했다.¹¹⁴⁾ 로버츠 준장은 반대의 이유로

109) Memorandum for Status of Korean Forces(1949. 11. 15), RG 319 Army Staff Plans & Operations Division 1949-1950, Box 549(Folder #12)

110) Philip. L. Bolte, 'Post-World War II and Korea', *Camp Colt to Desert Storm : The History of U.S. Armored Forces*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9, p. 224. 미육군은 1950년 전쟁 발발당시 3,457대의 M24 경전차, 3,202대의 M4A3E8 중형 전차, 319대의 신형 M46 중형전차, M46으로 개량할 예정인 M26 중형전차 1,215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M24 경전차는 불과 900대, M4A3E8 중형전차는 1,826대 만이 사용 가능한 상황이었다.

111) Thomas E. Hanson, *Combat Ready? : The Eighth U.S. Army on the Eve of the Korean War* Texas A&M University Press, 2010, pp. 38~39

112) 이 계획은 9사단 편성을 위해 수도경비사령부의 2개 연대 중 2연대를 웅진반도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113) 로버츠가 채병덕에게(1949. 8. 8), RG 338, KMAG, Box 8

114) Memorandum t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1949. 8. 17), RG 338, KMAG, Box 8

다섯 가지 점을 들었다. 첫 번째는 수송수단이 충분치 못하고, 두 번째는 장비에 필요한 정비 수단이 충분치 못하며, 세 번째로 기관총과 박격포가 부족하고, 네 번째는 훈련에 더 많은 탄약을 소비하게 되며 마지막은 유능한 장교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¹¹⁵⁾ 미국 군사고문단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육군을 3만명 더 증강하려 했으며 이것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뒤에도 다시 1만명을 더 모병하려고 했다.¹¹⁶⁾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 부터의 군사원조 전망이 어두워지자 국내의 자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한국 정부는 부족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1백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¹¹⁷⁾ 고등훈련기 도입을 위한 항공기 헌납 운동도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비행기 헌납금은 1950년 1월 6일 1억 3천 만원을 돌파했는데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일부 언론은 '防空萬全에 總進軍!' 같은 선동적인 기사제목을 달기도 했다.¹¹⁸⁾ 이승만은 굿펠로우를 통해 1만정의 M1 소총을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다.¹¹⁹⁾

이승만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기 위해 시도한 방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일방적인 병력증강과 38선에서의 무력 충돌은 미국을 끌어들이지 못한 채 한국군의 장비와 훈련대세만 악화시켰다. 장면과 조병옥을 통한 대미외교도 아무런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통령 특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게 된 조병옥은 종합보고에서 미국의 원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¹²⁰⁾ 조병옥은 국무회의 보고에서도 미국무부가 대한 원조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사회 일각에서 3차

115) Memorandum t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1949. 8. 29), RG 338, KMAG, Box 8

116) 로버츠가 신성모에게(1949. 12. 8), RG 338, KMAG, Box 8. 국방부의 추가 모병 이유는 제3·6·8사단 등 3개 연대 편제로 조직되지 못한 사단을 완전 편제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

117) 『서울신문』 1949. 12. 22 조간 2면

118) 『서울신문』 1950. 1. 13. 조간 2면

119) 이승만이 굿펠로우에게(1949. 12. 15), Millard Preston Goodfellow Collection, Rhee Shyngman 1945~1965, Box 1(국사편찬위원회 수집번호 002173)

120) 서울신문, (1949.12.15) 석간 1면

대전이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한 점에서 알 수 있듯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고서는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없었다.¹²¹⁾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초의 협상에서 거둔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큰 목표를 추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원한 수단들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4. 맺 음 말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직전 대한민국 정부의 대미 군사외교를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대한민국의 대미 군사외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미 협상 방식이다. 비록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라는 현실적인 요인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대한민국의 대미 협상 방식은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한 군사력 증강계획은 1948년 말의 육군 6개 사단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1947년 주한미군사령부가 수립한 한국군 6개 사단 계획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6개의 보병사단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비록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 계획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으나 1949년 초의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군사외교적 성과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에 의거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1949년 초 6개 사단 계획이 폐기된 이후에는 이와 반대로 무리한 목표가 추구되었다. 군 병력은 군사원조의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상한선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결과 한국군의 장비와 물자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1949년 2월 이전에는 6개 사단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맹목적인 병력 증강만이 계속되었다. 군사외교도 이에 맞춰

121) 第一一一回 國務會議錄(1949. 12. 20)

무리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미국의 군사원조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나 1949년 말의 군사원조 요구 중에는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가 많았다. 군사고문단이 제시한 것처럼 소규모의 원조와 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최신 장비나 일선급 장비를 고집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 직전 대한민국 정부의 대미 군사외교가 성과를 거두 못한 원인은 1949년 하반기 이후 한국 정부의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융통성 없는 협상 방식을 고집한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국방정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거시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담당해야 할 미시적인 업무까지 관여했다. 장갑차 생산 지시나 소총 조달 문제 등에 관여한 것은 군통수권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러한 업무 방식이 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장관들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특히 신성모 국방부장관에 비해 강력하다고 평가받았던 이범석 장관의 재임기조차 이승만이 미시적인 문제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승만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¹²²⁾

이러한 역할은 군사외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주한미군 철수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된 대미외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승만은 외교협상 실무자인 조병옥 특사와 장면 주미대사에게 구체적인 협상 목표와 방식을 지시하는 등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병옥과 장면은 협상 과

122) Weekly Activities of PMAG(1948. 11. 15), RG 338, KMAG, Box 4

이범석은 국방부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하급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임시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1948년 10월 5일 이범석에게 서한을 보내 이범석과 국방부 차관, 총참모장 대행이 주요 지휘관들과의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중요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항의했다. 로버츠는 이범석에게 국방부 각 부서의 담당자와 일선 지휘관들과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들을 것을 권유했다. 특히 송호성과 손원일을 회의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로버츠가 이범석에게(1948. 10. 5), RG 338, KMAG, Box 4. 이범석의 독단적인 업무처리는 군부 내에 파벌을 조성한다는 소문을 불러왔다. 국방부에 대북 첩보를 담당할 4과를 조직하려 했을 때는 이범석이 4과를 직할부대로 삼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高貞勳, 『秘錄 軍』, 東方書苑, 1967, 76~77쪽)

정에서 이승만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협상 태도 또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 협상에 있어 완고한 태도를 고수했으며 이것은 종종 미국과의 마찰을 가져왔다. 이승만은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대적으로 한국측의 입장을 배려했던 무초 대사와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역설적이게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렇게 완고한 협상 태도는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협상 방식 또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48~50년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이승만 대통령의 완고한 협상 태도는 실패의 가능성도 내포한 양날의 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안보적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0. 6. 29, 심사수정일 : 2010. 9. 10, 게재확정일 : 2010. 10. 29)

주제어 : 군사고문단, 군사원조, 로버츠, 무초, 신성모, 이범석, 이승만, 장면, 조병옥, NSC 8/2

<ABSTRACT>

A Study on the Failure of Military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1948~1950

Yoon, Si-w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character of military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during 1948~1950.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pre-war defence policy of the ROK failed because of insufficient military assistance of United States (US). Therefore, they couldn't make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character of military diplomacy of the ROK and role of the president Syngman Rhee.

Making of a modernized army for national defence was a most important task of the ROK government. The Korean Constabulary, organiz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insufficient for national defence. Therefore, ROK government tried to reorganize constabulary as an army. In December 1948, the ROK government released a plan to create an army of 100,000 soldiers, six infantry divisions consists with 18 infantry regiments and 6 artillery regiments. This was a first detailed national defence plan by Koreans. The main point of this plan was that revise the basic tactical unit of the korean army from brigade to division. The infantry brigade structure, made by americans, insufficient for regular warfare. The US government decided compromise with Korean government because it had a strong need for liquidation of USAFIK. In March 1949, *The Position of United States in respect to Korea(NSC 8/2)* made it clear that US government would provide military assistance to ROK army of 65,000 men. This was a small victory of the ROK military diplomacy.

But *Syngman Rhee*, President of the ROK, felt disappointment because the US government didn't accept his plan and initiated withdrawal of USAFIK. In May 1949 the ROK government decided to increase strength of army to 100,000 soldiers, 8 infantry divisions without the US support. Equipment, supply and training problems were aggravated because the ROK government unilaterally raised the ROK Army's manpower ceiling to 100,000. After strength of the ROK Army reached 100,000 by August, stocks that were to support an army of 65,000 were quickly dwindling away. And the disruption to the training schedules caused by the continuing expansion of the ROK Army during 1949. The ROK government couldn't gain sufficient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US after withdrawal of the USAFIK.

The ROK government has increased military assistance demand during later half of 1949. Some of the demands made by ROK government was beyond ability of US government. In example, the ROK government has requested delivery of M-26 medium tanks that wasn't sufficient for the US Army and F-80 jet fighters. The military diplomacy of the ROK government during later half of 1949 failed because of an unreasonable demand.

Consequently, irrational increasement of the ROK Army and excessive military assistance demands were a fatal blow for military diplomacy of the ROK. Therefore, President *Syngman Rhee*, key figure in military diplomacy, has responsibility for this disaster.

Key Words : *Jang Myeon*, *Cho Byeong-ok*, Korea Military Assistance Group (KMAG), *Lee Beom-seok*, Military Assistance, John J. Muccio, NSC 8/2, William L. Roberts, *Syngman Rhee*, *Shin Seong-mo*

